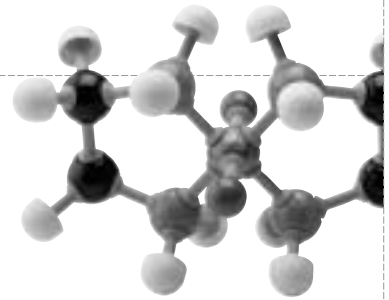


# 과학경영리더, 아인슈타인을 생각한다



만약 A가 성공(Success)이라면 성공 공식은  $A=X+Y+Z$ 이다. X는 일(work)하는 것이고 Y는 노는(play & enjoy) 것이며 Z는 침묵(Silence)하는 것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물** 해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지 100년이 된 해이다. 과학자 한 사람이 이룩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가 남긴 유산은 현실의 무수한 혜택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천재' 라기보다는 차라리 '열정적인 모험가'에 가깝다. '사랑은 의무보다 강하다'며 피아노 레슨을 중단하고 홀로 모차르트 소나타에 몰입하는가 하면 암기하는 데는 신통찮았던 그가 어렵고 뒤엎킨 수학 문제를 끈기 있게 풀어내는 집중력은 실로 대단했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오롯이 매진할 수 있는 힘. 업적을 떠나 험한 길을 택하라, 중요한 일은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그의 신념은 지식경영을 고민하고 역동성을 지향하는 벤처인에게 분명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문제발견 능력과 창의성의 콤비 플레이

지식경영의 핵심은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 감으로써 실천 경영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아인슈타인은 그 업적 못지않게 기발한 문제를 던져 놓고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했다.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두 물체의 상대 속도가 0이 되어 다른 한 편에서 바라보면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는 뉴턴의 상대성이론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은 빛에 주목했다. 그는 이 이론이 빛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지 고민을 거듭했다. 그 결과 빛의 속도로 쫓아가더라도 빛은 제 속도만큼 나아가는 성질이 있다는 광속불변의 원칙을 제기한다. 이것이 바로 특수상대성이론의 핵심이다.

무릇 지식경영이란 누군가 이미 확립한 지식을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창의성은 두 단계로 발현된다. 일단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예처럼 창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경영의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 벤처 경영인에게 큰 과제이다. 더욱이 창의적인 문제를 푸는 역량도 기르기 어렵지만 이를 복돋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사장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창의성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만의 몫으로 한정되어선 안 된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시스템 전체가 창의적이어야 한다.

## 쉬는 것도 전략이다

일상적 면면을 보자면 아인슈타인은 하루 24시간을 철저히 3등분하여 생활한 것으로 유명하다. 8시간은 연구, 8시간은 여가, 8시간은 수면으로 정확히 구분했다는 것. 서두에 언급한 성공 공식은 바로 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그의 친구가 성공 비결을 묻는 자리에서 명쾌히 등식으로 풀어냈다고 한다.

재충전 없이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을 태동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법. 근간에 매출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매년 휴가를 가는 이가 고작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경영인들조차 어려운 시기에 여가를 내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여가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 어원이 학교(School)나 학자(Scholar)를 의미하는 '스콜레(Scole)'라는 사실은 매우 이채롭다. 과도한 업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벤처 경영인에게 이는 일종의 권리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그를 읽는 코드 역시 다채롭게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 리더이자 창의력 교육의 중심 키워드로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 지금 벤처인의 눈동자 속에 어떤 구체적인 아인슈타인의 모습이 상으로 맺혀 있을지 자못 궁금해진다.